



화개정원 축제(사진제공 강화군청)



외포리 함상공원(사진제공 강화군청)

유천호 군수, 취임 4개월 만에 공약이행률 36.2% 달성!

군정목표 '풍요로운 강화'를 실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민선 8기 4개월 만에 공약이행률 36.2%로 공약 세부사업 114건 중 완료 18건, 정상추진 86건, 장기추진 10건으로 전체 이행률은 36.2%를 달성하고 있다.

민선 8기 공약사항은 5개 전략, 114개 세부사업으로 ▲‘살기좋은 강화의 미래, 성장기반시설 확대’ 15개 사업 ▲‘군민의 행복한 삶, 문화 및 복지시설 확충’ 16개 사업,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100세 시대, 맞춤형 평생지원’ 28개 사업 ▲‘농·축·어업 지속 혁신 성장!, 함께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33개 사업 ▲‘수도권 제일의 역사·문화·힐링 관광도시 강화’ 22개 사업이다.

추진이 완료된 사업은 ▲전국 최고의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확대 ▲감염병 대응센터 설립 ▲마을 지도자 자긍심 고양 정책 ▲각급 단체 임원 능력향상 교육 지원 ▲출산지원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모든 군민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생활민원 기동반 활동 강화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성청소년 보건위생용품 지원 확대 ▲농작물 재해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농민 부담금 지원 ▲가축분뇨 처리장비 지원 등 18개 사업이다.

추진 중인 주요 사업으로는 ▲강화읍 하수관로·외포지구 하수처리

시설(23년 완공 예정) ▲면단위 공영주차장 확충과 생활형 근린 휴식 공원 확충 ▲권역별 생활문화센터 건립 ▲관내 어린이집 전담 강사 배치(23년도 시행) ▲청소년·청년, 오디션, 경연대회 등 실비 지원 ▲제3, 제4장학관을 건립 ▲헬스케어시스템 39개 경로당 우선 도입 ▲70세이상 어르신 군내버스 무료화 ▲3대 거주가족 여행비 지원 ▲5개 어항 어촌뉴딜사업(24년 완공 예정) ▲품물시장 주차장 확충 ▲창업 공유오피스(23년도 준공 예정) 등이다.

장기추진 사업으로는 ▲계양~강화 고속도로 강화 기점부 우선 연결 ▲강화~영종 연륙교 건설사업 ▲강화~김포공항 철도 연결 ▲국도48호선(마송~강화)도로 확장 등 10개 사업이다. 장기 추진 사업의 신속한 진행을 위해 국회의원, 인천시와 중앙부처를 직접 찾아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돌파구를 마련해 나가고 있다.

한편, 군은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의 신속한 이행을 위해 지난 9월 개별 실천계획을 모두 확정하고, 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 사업별 추진상황을 군민들과 공유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공약사업 하나하나가 모두 중요한 역점사업이다”며 “약속을 지키는 군수, 능력이 입증된 군수로 오로지 지역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며 공약사항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내년 본예산 6,394억 원 편성... 혁신을 이룰 것

유천호 군수 “선택과 집중으로 현안 사업 해결”



간부회의(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올해 대비 247억 원(4.03%)이 증가한 6,394억 원을 2023년도 본예산으로 편성했다

군은 재정자립도는 0.16% 감소한 12.35%이나, 재정자주도는 57.05%로 0.29% 증가하며, 자주적 재량권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늘렸다.

유천호 군수는 민선 8기 출범 후 첫 본예산 편성에 대비해 적극적인 국·시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하며, 국고보조금은 올해 대비 53억원을 증액한 1,812억 원, 시비보조금은 33억 원이 증액된 826억 원을 확보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54억7천만 원을 새롭게 확보해 내년도 살림살이를 편성했다.

세출은 군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 안정 및 지역 경제 활력을 최우선으로 민선 8기 공약사업 추진동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

사회안전망 확충 및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기초연금 등 노인 생활안정지원사업 615억 원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사업 107억 원 ▲아동·영유아 지원사업 240억 원 ▲제3장학관 조성사업

17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 23억 원을 책정했다.

지역경제 역동성 회복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세대융합형 창업보육센터 조성 28억 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6억6천만 원 ▲공공근로, 창업·일자리 지원사업 13억 원을 반영했다.

군민 생활의 안전·편의 증진을 위해 ▲주문연도교 건설 80억 원 ▲하점면 주민자치센터 건립 41억 원 ▲국가 및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 72억 원 ▲면단위 하수처리장 정비사업 149억 원 ▲도로 및 인도 개설 53억 원 ▲공영주차장조성 49억 원 ▲서검보건진료소 이전신축 4억 원이 투입된다.

어르신 경제 활동 및 여가문화 지원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지원 110억 원 ▲경로당 운영 및 기능보강 등에 36억 원을 책정했다.

지속가능한 풍요로운 농어촌 지원사업으로 ▲미래농업센터 기반시설 구축 14억 원 ▲강화첨단농업 육성 지원 15억 원 ▲강화고려인삼 생산기반시설 조성 및 생산장려금 9억7천만 원 ▲농기계은행 서부분점 신축 5억8천만 원 ▲친환경 유기질비료 지원 31억 원 ▲외포·초지 어촌 뉴딜사업 추진 84억 원 ▲후포항 물양장 매립공사 20억 원 ▲외포지구 종합어시장 건립사업 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 외에도 문화 및 관광 육성, 명품 정주·교육 여건 조성, 재난방재 및 보건 분야에 예산을 두루 세웠다.

유천호 군수는 “재정 여건을 세심하게 고려해 선택과 집중으로 민선 8기 군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 사업을 해결해 피부로 느끼는 혁신을 이뤄냈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농·축·수산업 발전 정책협의회’ 개최

농축어가 경쟁력 향상 및 농특산물 판로확대 ‘사활’



농축수산업 정책협의회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6일 교동 화개정원에서 농·축·수산업 발전 정책 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경쟁력 있는 농·축·어업, 잘 사는 농·어촌 실현’이라는 주제로 유천호 강화군수와 관내 농·축·수산업 분야 전·현직 조합장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추 건조기 보조사업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청년 어업인 영어정착지원사업 ▲축산농가 의료폐기물 수거 ▲농경지 경운(가을갈이) 추진 등 농·축·어가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현안 사업을 논의했다.

한편, 강화군은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나서 지난달 31일에는 캐나다 한인 최대 유통업체인 Galleria KFT(회장 민병훈)와 지역 농산물 수출을 위한 협약을 맺고 북미 한인사회에 강화섬쌀을 소개했다. 지난 11일에는 인천시의회는 인천광역시 홍보물품으로 강화군 지역 특산품을 우선 구매하기로 합의했다. 또한, 전국 100여 개 대형마트 매장의 방송 장비를 통해 강화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하여 과감한 시책으로 농특산물 유통 판로를 확대하였다”며 “앞으로도 농·축·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실질적인 소득 향상을 위해 과감한 시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인천 군수·구청장,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 지방 재정사업 전환 요청



인천 군수구청장 회의(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14일 부평구청에서 개최된 인천지역 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의 지방 재정사업 전환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이날 협의회에서 강화군은 서북단 접경지역 정주여건 강화 및 균형발전 필요성을 강조했다.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으로 강화도와 인천 도심을 김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연결해 단일 생활권으로 만들고, 장기적으로 북한 개성·해주와 연결하는 남북 교류 핵심 인프라 사업이다.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은 1단계 사업인 영종~신도(3.2km, 1천 419억원)간 도로는 지난해 착공하여 2025년 개통된다. 1단계 사업은 지난 2019년 정부 재정사업으로 추진돼 예비타당성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되면서 추진에 탄력을 받았다. 2단계 신도~강화(11.4km,

3천500억원)간 사업은 민자 사업으로 계획되었으나,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했다.

또한, 강화군은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한 일자리가 없는 인구감소지역임을 강조하며,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정책적인 배려와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지역 군수·구청장은 한목소리로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사업’의 지방 재정사업 전환에 적극 협력하기로 결의했다.

유천호 군수는 “강화군은 각종 인프라 구축이 늦어지며 서울·인천 등 도심지역과 접근성이 떨어지고, 생활편의시설이 부족해 일자리가 없는 인구감소지역이다”며 “영종~강화 평화도로 2단계 사업도 정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고 예비타당성 검토 면제대상 사업에 포함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남북협력 시대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화군, ‘감염병대응센터’ 준공 군민 생명·건강 최우선! 공공의료 강화!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1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에 대응해 신속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의료 강화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감염병대응센터’를 준공했다.

감염병대응센터는 독립된 공간에서 검사부터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하는 감염병 대응 시스템으로 신속하게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준공식에는 유천호 군수를 비롯한 박승한 강화군의회 의장 및 군의원, 박용철 시의원, 내·외빈 관계자 및 지역 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감염병대응센터’ 준공을 축하했다.

‘감염병대응센터’는 강화읍 남산리 325-1번지 일원 부지 703㎡에 36억 5천만 원을 투입해 지상 2층, 연면적 599㎡ 규모로 건설됐다. 1층에는 음압 설비를 갖추고 감염병 진료실, 검체실, X-ray실, 환자 대기실 등에서 외부와 출입동선이 완벽하게 구분된 독립된 공간에서 감염병 검사부터 치료까지 공공의료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2층에는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는 총괄 사무공간을 조성했다.



강화군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 준공식 (사진제공 강화군청)

이번 센터 준공으로 역학조사, 입국자 추적조사, 감염환자의 자가 격리, 백신접종 등의 완벽한 대응체계를 갖춰 신종 감염병 출현에 신속하게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천호 군수는 “독립된 건물에서 검사부터 치료 연계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해 감염병 위기에 신속하면서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 보건소를 중심으로 공공의료를 강화해 군민의 건강과 생명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선 8기 ‘군민과 함께 풍요로운 강화군 건설’ 강조 “군민이 부르기 전에 현장으로 먼저 달려갈 것”



인천-강화-Galleria KFT 협약(사진제공 강화군청)

유천호 군수는 군민의 눈높이를 만족하기 위한 현장 행보에 매진하고 있다. 민선 8기는 ‘군민이 행복한 풍요로운 강화’를 군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강조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혁신사업을 진행중이다.

▲강화공설운동장 게이트볼장 준공 ▲군 최대 규모 외포리 공영주차장 준공 ▲강화호국공원 조성 ▲강화군 남부인지 건강센터 준공 ▲감염병대응센터 준공 등 민선 8기 4개월 만에 공약이행률 35% 이상을 달성했다.

주문연도교 건설사업(사업비 300억 원, 26년도 준공)은 설계에 착수에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내년도에는 강화읍 하수관로와 외포지구 하수처리시설이 준공되며, 오는 25년까지 공공하수처리시설 10개 사업에 1,087억원을 투입해 성장 기반시설이 된다.

군민들이 공원을 즐기며, 삶의 활력을 더하기 위한 남산·관청공원의 특성화 사업과 갑룡어린이공원과 길상공원 조성사업은 오는 25년까지 모두 완료된다.

경로당에는 헬스케어 시스템이 도입된다. 비대면 헬스케어 플랫폼과 건강관리 키오스크를 구축해 비대면 의료서비스로 보건소와



발로 뛰는 유천호 군수(사진제공 강화군청)

연계해 어르신들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70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군내버스를 무료화해 거점 복지시설 등으로 이동을 보장된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젊음의 끼와 열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청년센터마루’는 내년 1월 중앙시장 2층에 문을 연다. 또한 대학생들이 주거비 걱정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르면 내년 하반기까지 서울과 인천지역에 제3,4장학관이 건립된다.

아울러, 현장에서 답을 찾는 유천호 군수의 군정 철학에 따라 발로 뛰며 군정 현안을 해결하고 있다. 지난 10월에는 쌀 값이 45년 만에 최초로 하락하자 판로 개척에 나서 캐나다 최대 한인 유통업체인 Galleria KFT(회장 민병훈)와 수출협약을 맺고 강화섬쌀을 북미지역 한인사회에 소개했다. 영종~강화 연륙교 건설,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조업한계선 확대 등은 군수·구청장 회의를 통해 인천광역시와 중앙 정부에 강력하게 요청했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이 부르기 전에 현장으로 먼저 달려가 군민이 행복한 혁신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실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최우선!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2022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으로 각종 재난대비 현장 대응역량 강화에 나섰다. ‘재난대응 안전한국 훈련’은 강화군, 강화소방서, 강화경찰서, 강화군시설관리공단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가 참여해 오는 25일까지 실시된다.

군은 실전 같은 훈련으로 위기관리 매뉴얼을 점검·보완하고, 실제 현장에 재난 상황을 부여해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14일에는 강화군청어린이집외 1개소에서 지진과 화재에 대비한 대피훈련을 했으며, 16일에는 강화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해 각종 재난상황별 상황판단 회의, 비상대응 및 수습복구 대책 토론 등을 훈련했다.

18일에는 강화 고인돌 체육관에서 재난 상황별 민·관·군·경 현장 합동훈련을 펼치며 현장에서의 긴급대응체계 구축과 대응 능력을 향상했다.

유천호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골드타임 내 현장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재난관리기관으로 역량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 최벽하 기자

강화군, '강화하수관로 정비사업' 완료 주거환경 및 공중위생 개선 25년까지 공공하수처리 사업 1,087억원 투입, 성장기반 확충 박차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강화(옥림·용정)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지난 9월 완료하고, 오는 12월 정상 운영을 앞두고 현재 시험가동 중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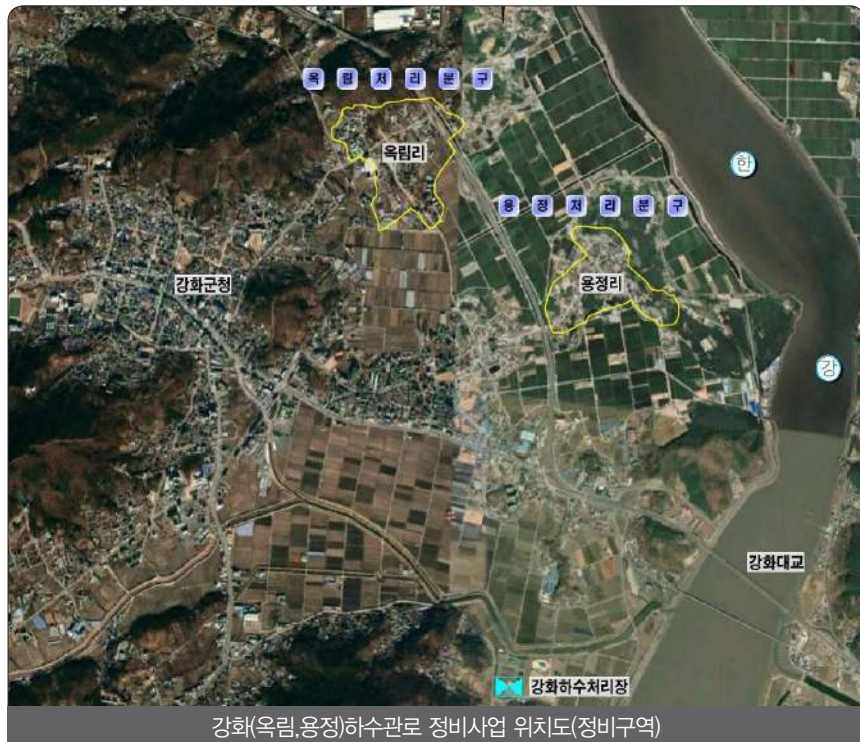
군은 강화읍 옥림리, 용정리에서 발생하는 하수처리 정비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공중위생을 한단계 향상했다.

'강화(옥림·용정)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옥림리, 용정리 일원 인근 소하천, 구거 등으로 유입된 생활오수를 분류식화해 공공하수처리장으로 보내는 정화사업이다. 총사업비 71억 원을 투입해 오수관로 12.3km, 하수맨홀펌프장 5개소를 설치하고 배수설비 344가구 등을 연결했다.

군은 이번 정비사업으로 인근 하천 수질 환경이 개선되고 기존 구거, 소하천으로 방류되던 오수로 인해 발생하는 악취 및 해충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정화조 청소 등으로 매년 발생하는 유지관리 비용도 절감할 수 있어 군민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군은 오는 2025년까지 외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등 10개 사업에 1,087억원을 투입해 지역 발전을 위한 성장 기반시설을 대폭 확충할 계획이다.

유천호 군수는 "이번 사업으로 강화읍 옥림리, 용정리 일원 586세대



강화(옥림·용정)하수관로 정비사업 위치도(정비구역)

군민의 정주여건이 강화됐다"며 "앞으로도 읍·면지역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처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치매와 따뜻한 동행, 치매 걱정없는 강화군! 치매가 있어도 공동체 일원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을 하며 치료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치매안심사회를 구현해가고 있다.

치매안심센터에는 등록된 치매 환자 2,721명에 대해 ▲인지강화 프로그램 ▲심터를 통한 돌봄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가족 교실 ▲힐링 프로그램 등으로 치매 가족들이 상호 교류의 장을 제공하고 돌봄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군은 치매 돌봄·치료 기반 확충을 위해 치매관리과를 신설하고, 치매안심센터의 남부권역 분소인 남부인지건강센터를 지난 7일 개관했다. 남부인지건강센터는 북부인지건강센터와 함께 치매예방,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연계 등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치매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군 보건소는 어르신들이 치매 걱정없이 노년을 살던 곳에서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 돌봄·치료 기반 확충 ▲치매 친화 환경조성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치매 친화 환경조성을 위해 '치매극복 선도단체'와 '치매 안심마을' 지정하고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극복 선도단체'는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환자와 가족과 함께하는 동반자 역할을 수행하며 치매 친화적 사회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올해에만 ▲지혜의 숲 도서관 ▲강화군노인복지관 ▲비에스 종합병원 ▲강화군 노인문화센터가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참여했다. 또한, 선원



인지강화교실 야외수업(사진제공 보건소)

면 창4리 등 치매안심마을에는 ▲치매인식개선 교육 ▲치매선별 검사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치매예방프로그램 등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마을공동체의 일원으로 지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치매가 있어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함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치매로부터 걱정 없는 강화군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직물공장의 화려한 변신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마을의 경관을 해치던 폐직물공장(동광직물) 터를 활용해 생활문화센터를 건립했다.

군은 사업비 32억 원을 투입해 기존 동광직물의 한옥과 공장형태를 그대로 살려 소창직조기계 전시실, 영상감상실, 다목적홀, 작은도서관, 북카페 등을 조성해 오는 12월 개관을 목표로 마무리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한옥건물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설립한 ‘솔터우물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전통찻집을 운영하며 강화특산품을 이용한 다양한 디저트와 차를 선보일 예정이다.

동광직물은 1963년 강화읍 윤만식의 공장을 매입해 확장·증축하였으며, 한때 종업원 2백여 명이 근무한 강화군의 직물산업을 대표했던 기업이었다. 폐업 후 관리가 되지 않아 마을의 경관을 해치는 흉물로 남아있었다.

한편 군은 폐 직물공장을 적극적으로 매입해 전시관, 북카페, 체험관, 주차장 등으로 조성하며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평화직물은 지난 2018년 소창체험관으로 리모델링해 소창과 관련하 다양한 체험으로 원도심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인기가 좋다. 이화직물 터는 ‘관청리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해 원도심 접근성 향상과 함께 성장 잠재력을 높였다. 심도직물 터는 용흥궁 공원으로 조성돼 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조양방직은 1958년 폐업한 이후 버려진 공간이었지만 현재는 미술관 겸 카페로 운영되고 있다. 각종 전시물로 채워진 넓은 공간이 입소문을 타며, 원도심 도보여행의 필수 코스로 자리잡았다.

유천호 군수는 “동광직물 생활문화센터는 주민들의 소통의 공간이자 방문객들의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며 “조양방직, 소창체험관 등과 기존 시설과 연계해 원도심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제17회 강화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 ‘사랑온기 한가득’ 자원봉사자 화합·동기 부여 축제



강화군자원봉사자의날 기념행사 (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자원봉사자의날 기념행사(사진제공 강화군청)

강화군 자원봉사센터는 23일 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제17회 강화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는 2022년도 봉사성과를 돌아보고, 자원봉사자의 사기 고양과 봉사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화여자고등학교 ‘라운제나’의 수준 높은 공연으로 막을 올린 기념행사는 활동영상 상영, 어린이 동아니 난타 공연, 초청 가수의 축하 공연 등으로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이어 기념식에서는 지역발전과 자원봉사 활성화에 앞장서 온 수상자 40명에게 군수상, 국회의원상, 군의장상을 비롯한 5천 시간 이상 활동 자원봉사자인 봉사왕과 인정서 등을 수여했다.

유천호 군수는 “힘든 상황에서도 다양한 분야에서 헌신적으로 봉사활동에 앞장서는 봉사자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자원봉사자분들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강화군을 최선을 다해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 최백하 기자



강화군, 명품 ‘강화섬 해풍배’ 75톤 수출

75톤 대만 수출, 세계인의 입맛 사로잡는다

강화군(군수 유천호) ‘강화섬 해풍배’가 당도, 무게, 색 등 철저한 기준으로 선별한 75톤은 검역 검사를 마치는 대로 대만으로 수출된다.

현재 강화군의 공동선별장에서는 우수한 ‘강화섬 해풍배’ 선별 작업으로 손길이 바쁘다. 올해는 폭우·일조량 부족 등 기상 여건 악화에도 철저한 관리와 영농지도로 우수한 강화섬 해풍배의 생산량을 늘려 75톤 수출의 쾌거를 올렸다.

‘강화섬 해풍배’는 긴 일조시간과 부드러운 바닷바람을 머금고 자라 뛰어난 식감과 높은 당도를 자랑한다. 또한, 풍부한 과즙과 단맛에 더한 향이 으뜸으로 풍부한식이섬유를 자랑하며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 2007년 27톤 수출을 시작으로 매년 수출량을 늘리고 있다. 유천호 군수는 “국내외 농업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해외 농산물



강화섬 해풍배 선과장(사진제공 농업기술센터)

밀려드는 어려운 시기에 소비자들을 입맛을 사로잡기 위한 농가의 노력에 감사드린다”며 “강화농특산물의 대외 경쟁력 향상과 판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화군, 대학생 SNS기자단 트래블리더 초청 팸투어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1일과 12일 한국관광공사 대학생 SNS 기자단 ‘트래블리더’를 초청해 팸투어를 진행했다.

첫날은 남부권역의 길상면 원도심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사찰인 전등사와 한옥성당인 온수리 성당을 둘러보고 최근 인천시 등록문화재로 등록된 금풍양조장에서 막걸리 만들기 체험을 했다. 또한, 인천 웰니스 관광지로 지정된 약석원에 방문해 강화약쑥 전통좌훈체험 등을 했다.

둘째 날은 DMZ 평화의 길 테마노선 코스로 평화의 섬 교동도와

북부권역을 방문했다. 이어 교동도 화개정원에서 화개정원 축제를 즐겼으며, 모노레일을 탑승하고 전망테크에서 북녘의 연백평야를 한눈에 담았다. 마지막 코스로 대룡시장, 강화평화전망대, 갑곶돈대 등을 방문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팸투어로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관내 관광지 및 체험콘텐츠 등이 알차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관광수요에 부합하는 마케팅 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 관청1·3리, 인천시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선정

‘23년 2월 28일까지 2차 공모, 5개소 내외 추가 선정 예정



인천시청 전경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23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10곳 중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행복마을 가꿈사업은 정비(예정)구역 해제지역이나 저층주거지 밀집구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을 정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인천형 재생사업으로 원도심 주민의 삶을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2023년 대상지(10개소) 선정을 위해 10월 31일까지 제안서를 접수받은 인천시는 11월 24일과 25일 2023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공모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해 강화군 2개소를 사업 대상지로,

연수·남동구의 4개소를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최종 선정했다.

공모에는 3개 군·구에서 9개의 제안서가 접수됐으며, 인천시는 대상지 선정을 위해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자문위원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서류심사와 함께 현장평가를 진행했다.

평가위원회에서는 △대상지의 물리적·사회적 요건 △재생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거변년스 구축 및 운영가능 여부 등을 평가했으며, 강화군 관청1·3리를 대상지로, 연수구 청학동·연수1동, 남동구 구월2·3동을 사업계획 보완을 조건으로 선정했다.

2023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6개 구역은 향후 구역내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의 사업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간 내 대상지별 거버넌스를 구성해 선정조건을 이행해야 한다.

김남관 시 주거재생과장은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구역이 주민 의견을 반영,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시민이 행복한 아름다운 마을이 되도록 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2023년 2월 28일까지 제2차 2023년 행복마을 가꿈사업 대상지 공모를 통해 5개소 내외의 사업 대상지를 추가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 소공인 전용 정책자금 100억 원 펀다

11.25.(금)부터 접수 / 최대 3천만원 / 3년간 이차보전

인천시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

지역산업의 기반을 이루는 제조업 지원을 위해
「2022 소공인 지원 특례보증」을 시행합니다.

지원대상 인천시 관내 제조업 영위기업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지원규모 총 100억원

지원금액 업체당 3천만원 이내

이차보전 3년간 연 1.5% 이차지원 (2023년 7월까지 연 2.5% 지원)

신청방법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보증상담예약」 신청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제조업의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소공인(小工人)*을 위해 총 100억 원 규모의 정책자금 대출을 특별 공급한다고 밝혔다. * 제조업을 영위하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사업체

산업경제의 기반인 제조업 분야에 금융지원을 확대하고자 지난 9월 발표한 ‘시민이 행복한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에 따른 신규 정책자금으로, 이번 사업을 통해 약 400명 이상의 소공인이 혜택을 입게 될 전망이다.

지원내용은 현재 영업 중인 인천시 소재 소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천

만 원까지 대출(보증)을 지원하는 것으로, 만기 5년 내에서 1년거치 후 4년간 매월 분할상환하는 등 지원조건은 기존 특례보증과 동일하다.

이를 위해 시는 8억 원의 보증재원을 출연하고, 3년간 연 1.5%의 이차보전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최근 고금리로 인한 소공인들의 이차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출시점부터 내년 7월말까지는 이차비용 연1%를 추가 지원(이차보전을 연1.5%→연2.5%)할 예정이다. 또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최대 3천만 원까지 보증을 지원하며,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진행한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경제난 속에서 소규모 제조업 분야에서 체감하는 경기는 다른 소상공인들보다 더욱 어려울 것이라 본다. 이번 사업은 민생경제 대책 차원에서 지역경제 기초인 플뿌리 산업을 육성하고자 마련한 것”이라며 “우리 시는 앞으로 지역 소공인의 성장을 지원하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접수 기간은 11월 25일(금) 오전 9시부터 자금 한도가 소진되는 시점까지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되며, 신청을 원하는 소공인은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예약 후 신청하면 된다. 온라인으로 예약 신청이 어려울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을 방문해 예약 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 고시공고,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icsinbo.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최백하 기자

길상면 발전협의회, 화합과 발전의 크리스마스트리 점등



강화군 길상면 발전협의회(회장 김홍식)는 지난 6일 온수리 회전교차로(강화남부농협주유소 앞)에서 길상면의 화합과 발전을 희망하는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을 가졌다.

이번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에 김홍식 발전협의회장의 제안으로 길상면

이장단, 노인회, 주민자치위원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체육진흥후원회, 길사모,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생활안전협의회, 온수리마을재생사업 주민협의회, 길상면 재창조사업 추진위원회의 후원과 길상면사무소(면장 김재구), 길상파출소(소장 신강열)의 협조, 그리고 길사모 대외협력봉사팀장인 민준기씨의 재능기부 등 길상면 관내 단체와 개인들의 자발적인 힘으로 설치하여 더욱 뜻깊은 의미가 되었다.

김홍식 발전협의회장은 “길상면 단체와 주민이 서로 도와 비용을 모으고 순수 장식한 트리라 더욱 자긍심이 있다”며, “크리스마스 트리를 통해 지역 내 따뜻하고 훈훈한 연말 분위기를 느끼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재구 길상면장은 “우선 의미있는 프로젝트를 제안해 주신 김홍식 발전협의회장님과 함께해주신 기관·단체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사랑과 기쁨의 온기가 길상면 곳곳에 전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덕신고등학교, 학생들이 직접 담근 김장김치 나눔



덕신고 사랑의 김장김치 전달

강화군 강화읍(읍장 구자광)은 덕신고등학교(교장 박상익)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김장김치(5kg) 60통을 읍사무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덕신고 학생회 주관 하에 학생 및 교직원, 강화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등 40여 명이 참가해 직접 담근 김치를 관내 취약계층 60가구에 전달하며 진행됐다.

박상익 교장은 “봉사활동에 참여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와 물가상승으로 어려운 시기지만 김장 김치를 맛있게 드시고 따뜻한 겨울을 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구자광 읍장은 “바쁜 학사 일정에도 이웃 나눔을 실천한 학생과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매년 담가주시는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며 화답했다.  - 최벽하 기자

Photo NEWS 내고향을 훈훈하게 지키고 가꾸는 사람들



길상면 교통캠페인



화도면 기관단체 이불 기탁

강화군, 동절기 이웃사랑 ‘기부 행렬’



이웃돕기 성품 기탁식

강화군에는 연말을 맞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기부가 이어지고 있다.

군은 동절기를 맞아 비에스종합병원에서 쌀(10kg) 150포, (주)엘엔엘 아이엔티에서 소파(1인용) 40개, 강화를 사랑하는 드러머클럽에서 3백만 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비에스종합병원 김종영 병원장은 “병원 개원 4주년 기념식에서 받은

강화쌀과 직접 준비한 지역 쌀을 더해 자라나는 아동들이 결식하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탁하게 됐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 마음이 따뜻하다”며 “이웃과 함께 정을 나누고 행복을 나누는 강화군이 될 수 있도록 보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

강화고등학교 학부모회 ‘다꿈맘’, 사랑의 순무김치 기탁



강화고등학교 순무기탁

강화고등학교 학부모 동아리(회장 한길수, 이하 다꿈맘)는 지난 22일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달라며 재학 중인 학생들과 정성껏 담근 순무김치 100통(200kg)을 강화읍사무소에 전달했다.

다꿈맘은 강화고 학부모로 구성된 단체로 수년 간 지역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김치를 기부하고 있다.

한길수 회장은 “지역의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고, 앞으로도 꾸준히 나눔을 실천하는 단체가 되겠다”고 말했다.

이에 이명수 부읍장은 “매년 김치 나눔을 실천해 주시는 강화고 학부모회에 감사드리며, 이웃의 따뜻한 정이 필요한 분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1**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치담그기 행사 김치 260여 가구에 전달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김장행사

강화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조인술)는 지난 20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김치담그기’ 행사를 가졌다.

본 행사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자원분과(분과장 김용우) 위원, 강화읍 협의체, 가족센터 자원봉사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담근 김치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 다문화, 저소득층 아동, 독거 어르신 등 생활이 어려운 가정에 김치 5kg씩 260여 가구에 전달했다.

김용우 분과장은 “김치를 담글 때 힘이 들긴 하지만 따뜻한 마음이 담긴 김치로 어려운 이웃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 **1**

- 최백하 기자

익명의 기부자, 양도면사무소에 200만원 성금 기탁



양도면 익명 기부자 기탁

강화군 양도면(면장 조순이)은 지난 22일 익명의 기부자가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면사무소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부자는 신상을 밝히지 않은 채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다"며 성금을 전달했다.

기탁된 성금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지원될 예정이다.

조순이 면장은 "어려운 시기에도 뜻깊은 기부를 해주신 익명의 기부자에게 감사드리며, 성금은 관내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 최벽하 기자



강화군치매안심센터

학생봉사단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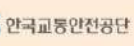
학생여러분!
많이 지원해주세요~!



모집기간 | 12월31일까지

모집 분야 북부인지건강센터 실터 보조 남부인지건강센터 실터 보조	활동 기간 2022.12.01. ~ 2023.02.28. (2개월 간)
모집 대상 13세 이상 청소년 (1달에 한 번 이상 참여 가능자)	신청 방법 https://partner.nid.or.kr/ 중앙치매센터 치매파트너 활동에서 희망 날짜 지정 신청 (상단 QR코드 접속)

 치매안심센터 930-4098

 인천경찰청
  TS
  안국교통안전공단

개인형이동장치이용 안전수칙

안전수칙 준수하기!



- 자전거도로 또는 차도 우측 가장자리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로 주행
- 보도 주행 절대 금지
-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개인형 이동장치에서 내려서 끌고 보행
- 음주 또는 약물을 복용한 후에는 운전 금지
-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2인 이상 탑승 금지
- 운전 중 휴대전화, 이어폰 등 사용 금지

안전한 주행습관 가지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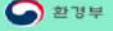


- 급가속·급감속·급방향전환 금지
- 도로교차지점에서는 일시정지 후 좌우를 살피고 서행운전
- 내리막길에서는 제동이 어려우므로 속도를 낮춰서 운전
- 도로턱이나 요철이 있을 경우, 가급적 내려서 끌고 보행
- 안전모, 무릎보호대 등 안전장구 착용
- 야간에는 전조등을 켜고, 가급적 밝은색 옷 착용

개인형이동장치 점검하기!



- 기기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사전에 정보 확인하기
- 탑승 전 타이어 공기압과 브레이크, 핸들, 배터리 등 점검
- 전조등, 반사경 등을 장착하고 주행 전 점검

 환경부

11월 24일부터

일상에서 일회용품이 더 줄어듭니다.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규정이 변경됩니다.

카페,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 매장에서
 1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용범위 가이드라인" (환경부 홈페이지 게재) 참고



제14회 강화 남부이장단 체육대회 성료!

군정의 '참일꾼' 화합과 친목의 장 마련



강화군 양도면 이장단(단장 김옥현)은 지난 14일 양도면 동광중학교 족구장에서 강화군 남부지역(불은, 길상, 화도, 양도) 이장단 체육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 유천호 강화군수, 박승한 강화군의장,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아름다운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가 되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이 대회는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개최됐다. 경기종목으로는 족구, 제기차기, 고무신 던지기, 훌라후프 오래 돌리기 순서로 진행되었으며, 각 면 대표선수들은 그동안 연습해 온

실력을 뽐내며 승패에 관계없이 마음껏 웃고 즐기는 재충전의 시간을 보냈다.

김옥현 단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남부이장단이 더욱더 단합하고 활발히 소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천호 군수는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 강화남부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장님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하루는 일상에 고단함에서 잠시 벗어나 즐거운 힐링의 시간을 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연개소문(淵蓋蘇文)과 고려산의 전설

강화도 고인돌 유적지 근처에 연개소문 유적비에는 연개소문이 “강화군 고려산 기슭에서 태어나 치마(馳馬)대와 오정(五井)에서 무예를 갈고 닦았으며, 지금도 이곳에는 그가 출생하였다는 옛터와 자취가 남아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향토사 <강도지(江都誌)>에 따르면 그는 강화도 고려산 기슭에서 태어나, 치마대와 오정(五井)에서 무예를 갈고 닦았으며, 위엄 어린 얼굴에 당당한 풍채는 못 사람을 압도하였다고 한다.

강화도의 향토사지인 『속수증보강도지』에는 ‘연개소문은 고려산 밑에서 출생하였는데, 스스로 말하기를 자신은 물에서 나왔다고 하면서 대증을 현혹시켰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연개소문은 고려산의 우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자신의 성도 ‘못 연(淵)’으로 했다고 전설로 전해진다.

연개소문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린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서는 임금을 죽인 역적이며, 고구려의 멸망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기록되어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고구려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한 힘을 가진 권력자이며 성품이 포악하고 잔인한 독재자로 기록되어 있다. 이는 유교적 사고가 지배하던 당시 상황을 보면 연개소문의 권력 찬탈은 더 큰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신채호의 『조선상고사(朝鮮上古史)』에 의하면 고구려 900년 이래 전통의 호족공화(豪族共和)의 구(舊)제도를 타파하여 정권을 통일하고, 서국(西國) 제왕 당 태종을 격파한 동방 아시아 전쟁사의 유일한 인물로 평가되어 있다.

또한 당(唐)을 정벌하고 한민족의 얼을 드높일 것을 주장한 연개소문은 큰 꿈의 나라를 펼치고자 보장왕(寶藏王)을 왕으로 세우고 스스로 대막리지(大莫離支)가 되어 나라 정치를 바로잡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영류왕 집권 당시 당태종은 중원을 장악하고 나서 광개토대왕 이래 200여년간 고구려의 강력한 동맹세력이던 돌궐, 거란 등 북방민족이 이세민의 당의 세력권으로 편입시켰다. 이로써 고구려는 군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된다.

642년, 연개소문은 고구려의 수도 장안성에서 100여 명의 귀족을 처단하고, 영류왕의 조카 보장왕을 왕으로 세우고 자신은 대막리지 자리에 오른다.

643년 연개소문은 당에 사신을 보내 조공하였으며, 이세민이 장려하던 도교를 청하고, 불교사찰을 도관으로 삼고 당의 도사를 예우하였다고 한다. 이는 당의 환심을 사 견제를 완화시키고 고구려의 내정을 안정시키기 위한 시간을 벌기위함으로 보인다.

이시기에 연개소문은 요하전선에 양만춘(안시성 성주), 절결중상(대조영의 부) 등의 장수를 발탁하여 안시성, 비사성, 부여성 등에 배치하여 당의 침략에 대비했다.

645년 당 태종은 연개소문의 집권을 응징한다는 구실로 수십만의 정예부대를 이끌고 고구려를 침략했다. 을지문덕 장군이 대승을 이루었던 요동지역의 중요 거점 요동성마저 함락되자 기세가 오른 당나라 군대는 기세가 올라 평양성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의 진군은 안시성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했다. 당나라 군대는 충차(큰 돌을 쏘는 공성무기), 당차(성문을 파괴하는 공성무기), 운제(수레 위에 망루를 세워 성으로 바로 침투하도록 설계된 무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지만 안시성을 함락시킬 수 없었다.

이에 이세민은 안시성보다 높은 토산을 쌓게했지만 오히려 양만춘의 돌격부대가 이 흠산을 점령했고, 이때 입은 부상으로 이세민은 649년 사망하게 된다. 그리고 당황제 이세민은 "고구려와 전쟁하지 말아라. 아버지의 실패를 되풀이하면 사직을 지키기 어렵다. 우리가 고구려를 치지 않은 한 고구려도 우리를 칠 힘은 없다."라는 유언을 남겼다고 전해진다.

안시성 전투는 양만춘 장군의 업적으로 영화로도 제작되었지만 당시 연개소문은 오골성에서 남부육살 고혜진, 북부육살 고연수 등 오골성주(烏骨城主)에게 안시성 외곽전투를 지휘하였으며, 당의 퇴로를 차단하고, 후퇴하는 이세민을 끝까지 추적하는 등 안시성 전투를 총괄 지휘하고 있었다고 전해진다.

이후에도 660년 2차 고당전쟁에서도 평양성 전투와 사수대첩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666년 연개소문이 사망하면서 연개소문의 아들 연남생이 당나라에 항복하면서 고구려는 멸망의 길을 걷게 된다.

후계 구도를 안정화 하지 못하고, 고구려의 운명을 달리하게 해 고구려의 멸망을 초래한 장본인으로 보는 이들도 있지만 근래에 들어와 연개소문에 대한 평가는 많이 달라졌다.

단재 신채호는 ‘위대한 혁명가’로, 독립운동가 백암 박은식은 ‘우리 민족의 자존심을 지킨 탁월한 전략가요, 나라를 구한 영웅’으로 평가하고 있다.

연개소문은 승전의 기세를 몰아 당나라 내륙으로 깊숙이 밀고 들어가 화북(華北) 지방을 정벌하고 빛나는 전과를 거두었다. 그는 우리 민족의 자랑스러운 영걸(英傑)이었다.

고려산은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연개소문에 관한 구체적인 전설이 있는 장소이다.



이대형 교육칼럼

한국은 교육선진국



이대형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경인교육대학교 교수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다. 어릴 때 몸에 밴 버릇은 나이가 들어도 쉽게 고칠 수 없다는 뜻이다. 어려서부터 나쁜 습관이 들지 않도록 잘 가르쳐야 한다는 교훈이다. 우리나라가 세 살 때부터 어린이에게 인공지능과 협력하여 평생학습을 가르친다면 우리나라는 당연지사(當然之事)교육선진국이 될 수 있다.

인공지능시대가 도래되어 지식과 기술, 사회 환경의 속도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과학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다’라는 말이 일상생활이 되었다. 과학기술은 인류에게 수많은 혜택을 가져다주었다. 경제적 풍요, 빠른 정보와 의사소통의 기술, 건강 개선, 수명연장 등이다. 2-3백년 전만해도 30~40세였던 평균수명이 과학기술의 발달과 저출산 고령화라고 하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100세 시대에 이른 것이다.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UII, 2019)에서는 모두를 위한 포용적이고 평등한 양질의 교육과 평생학습을 강조했다. 유럽연합(Cedefop, 2019)에서도 교육과 훈련, 평생학습을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로 천명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선별 지원이 아니라, 보편적 평생교육 수급권을 제안하면서 각국 정부에 전 생애주기에 걸친 효과적인 평생학습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했다.

평생학습은 유아에서 시작하여 노년에 이르기까지 평생에 걸친 교육을 뜻하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 31조 1항과 5항에서는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국가의 평생교육 진흥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평생교육의 목적은 개인의 신체적, 인격적인 성숙과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성장발달을 전 생애를 통하여 지속시키는 데 있다. 그러므로 평생학습의 기회는 삶의 현장에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루어질 수 있다.

평생학습의 혁신은 영국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지식기반사회로 도래된 2000년 초반에 평생학습 지원제도를 개혁했던 것이다. 영국은 5세부터 16세까지 총 11년간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고등교육은 선택사항이다.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업학교, 농업학교, 상업학교 등의 평생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할 부분은 학교교육의 단계를 평생학습을 위한 기본 학습능력을 키우는 과정으로 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및 자격제도가 정비되어 있다는 점이다. 학교교육이 아니더라도 자격제도를 통해 고등교육으로 이행되는 통로가 보장되어 있으며 비전통적 학습자를 위한 입학전형에 자격제도와 사전학습인정제 등이 적극 활용되고 있다.

독일에서도 지식기반사회의 전환으로 적극적인 평생학습이 이루어졌다. 유치원생에서부터 초등학생 및 중·고등학생들이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하여 학문에 대한 호기심을 일찍 깨우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고등학교 학생들은 자신들이 전공할 과목을 입학 전에 수강해 보면서 진로와 진학할 학과를 결정하기 위한 체험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대학에서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여러 경로로 대학에 접근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양한 교육수요자들을 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전환했다.

우리나라에서는 초·중·고등학생에게 특강형식으로 대학교수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만 주어질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OECD에 가입된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의 37개 국가 중에서 2020년 10월 5일 한국 교육열(대학이상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 1위라고 발표했다. 삼성과 현대차 등이 글로벌 대기업으로 손꼽은 세계적인 여론도 높다. 이는 마크 피터슨(미국 브리검영대 명예교수)이 주장해온 직지 금속활자 인쇄술과 한글, 그리고 한국의 교육열이 세계최고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기반사회에 걸맞게 한국을 교육선진국으로 우뚝 세워야 한다. 인류공동체의 번영을 위해 그리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평생학습으로 전환하는 혁명을 단행해야 한다. 미래평생학습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아동 교육(유아기교육 분야), 청소년 교육(초중등교육 분야), 성인직업능력개발(고등교육 및 계속교육 분야), 성인평생교육(고등교육 및 성인 교양교육 분야) 영역으로 설정해서 실시해야 한다. 초·중·고등학교와 대학이 함께 지역교육생태계를 조성하여 평생학습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과정 분권화를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미래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고 제안한다. ■



환절기돌연사의 주범 부정맥주의보

계절 변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는 부정맥은 심혈관 질환의 초기 증상이자 돌연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 일교차가 부쩍 커지는 초봄이나 가을부터는 특히 조심해야 할 질환 중 하나로 부정맥을 꼽는다.

부정맥이란?

심장 내에는 자발적으로 규칙적인 전기를 발생시키고 심장 전체로 전기 신호를 전달하는 전기전달체계가 있다. 부정맥은 이러한 전기 전달체계에 변화 및 이상이 생겨 심장 박동과 맥박이 불규칙하거나 비정상적인 것을 말한다.

정상인의 맥박이 분당 약 60회~100회인데, 이보다 지나치게 느리거나 빠른 경우 또는 불규칙적인 상태일 때 부정맥이라고 한다. 부정맥 진단을 받았다고 모두 나쁜 게 아니고, 증상이 없는 부정맥이라고 해도 안전한 것도 아니다.

따라서 증상이 나타나면 설사 그 증상이 잠시 왔다가 사라졌어도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어떤 부정맥인지를 알아야 한다. 그래야 생사와 연결되는 일부 부정맥으로 인한 돌연사나 뇌졸중 등을 막을 수 있다.

부정맥예방 및 관리방법

1. 규칙적인 운동으로 체중 유지

가능하면 매일 30분 이상 운동을 하여 적정 체중 및 허리둘레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다만 심장에 부담을 주는 과한 운동은 피하고 걷기나 달리기, 자전거, 수영 등 유산소 운동이나 온몸의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요가나 스트레칭 체조 등을 권한다.

2. 커피, 술, 담배를 피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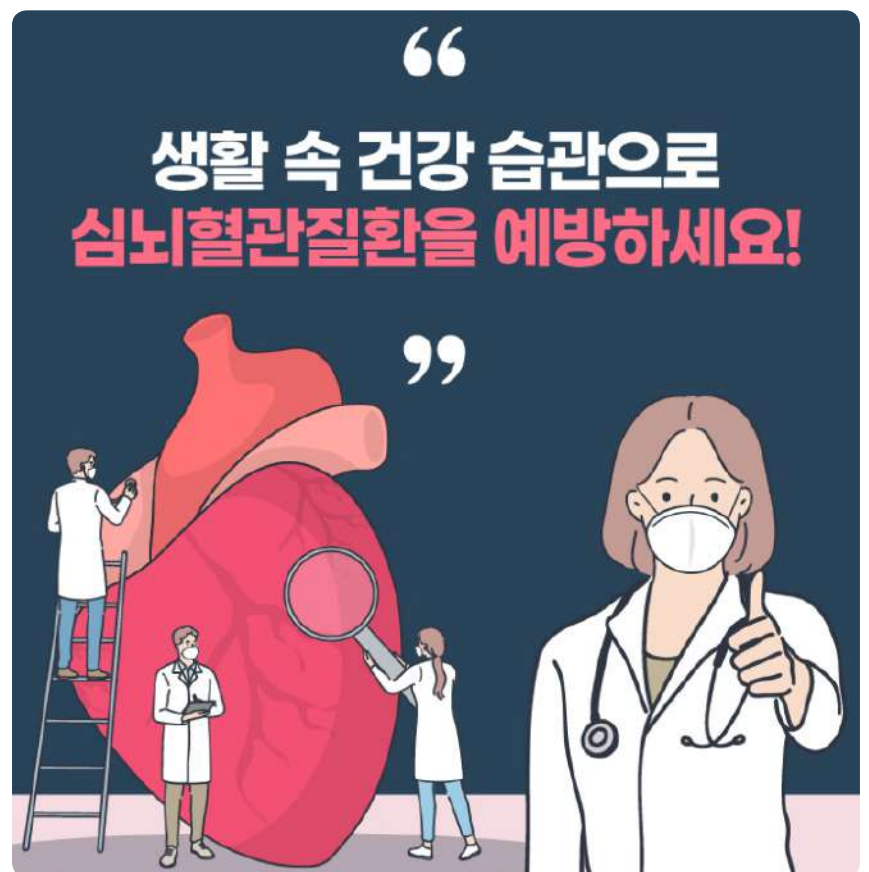
부정맥을 악화시키는 3요소라고 할 수 있다. 심지어 건강한 사람도 술이나 담배, 카페인 등이 원인이 되어 심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금연은 반드시, 술은 하루에 1~2잔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다. 지나친 카페인 섭취도 부정맥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커피는 하루에 1~2잔 정도로 적당히 마시는 것이 좋다.

3. 스트레스를 줄이자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일 뿐 아니라 부정맥을 유발하는 흡연이나 음주, 폭식 등의 생활습관을 갖게 한다. 따라서 자신만의 성향이나 관심사에 맞춰 취미생활을 갖거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아 즐거운 마음으로 생활하도록 하자.

4. 소금의 적정량 섭취

소금은 적게 먹어도 부정맥의 원인이 된다. 나트륨은 심장 박동수를 조절하는데 양이 부족하면 심장이 제대로 수축하지 않아 부정맥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금은 하루에 3~5g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다. (현재 세계보건기구(WHO)는 1일 소금 섭취량을 5g, 미국심장학회는 3.75g을 권장한다.)



사진제공 질병관리청

5. 여성도 예외일 수 없다

부정맥과 같은 심혈관 질환은 술, 담배, 기름진 음식을 즐기는 남성들만의 질환으로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폐경기 여성들도 예외일 순 없다. 폐경을 맞아 심장 보호 효과를 가진 여성호르몬 에스트로겐의 분비가 줄어들면, 심혈관 질환 위험에 쉽게 노출된다. 따라서 폐경기 여성도 관심을 갖고 검진을 받는 것이 좋다. [▶](#)

"마음아 안녕! 우리 대화 좀 하자."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보듬어주는
마음건강 이벤트!**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아동청(소)년**과 함께 하는
마음건강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참여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드립니다.

1 참여대상 강화군 초중고 학생 ~ 만 34세

2 참여기간 2022. 11. 17 (목) ~ 2022. 12. 09 (금)

3 참여방법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홈페이지 접속
(<https://ghmhc.or.kr>) → 공지사항확인
→ 네이버폼 링크 접속 → 제출

4 당첨자 발표 2022. 12. 13(화) / 게시기간 : ~ 2022. 12. 15 (금)

5 상 품 100명 추첨. 음료&간식(피자&치킨 세트)쿠폰

6 문 의 032-932-4093

※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강화군정신건강복지센터
Ganghwa-gun Mental Health Center

032) 932 - 4093

인천강화점

[OPEN : 11시
CLOSE : 20시]

‘명품떡볶이와 통큰커피가 있는
휴식공간입니다.’

TEL . 032-934-9372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76-3

청년다방 인천강화점

포장, 배달 가능



더 나은 인쇄 · 광고로 보답하는 신뢰할 수 있는 삼성인쇄광고기획이 되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확인서 & 중소기업중앙회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 구비

삼성인쇄광고기획은 오랜기간 쌓아온 실무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최신식 시스템과 최신의 기술로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편집, 기획, 출판 및 옵셋인쇄, 마스터인쇄, 캘린더, 각종 광고물 등 원스톱 환경을 구축하고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결과물로

클라이언트의 선택에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량의 물량 수급에도 안정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화하는 인쇄시장 환경에 관심을 기울여 다양한 방면으로 도전하고 발전하는 회사가 되도록 늘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S 삼성인쇄광고기획

☎ 032)934-7778 / 010-6608-7778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20번길 2 (강화군청 후문 강화경찰서 앞)



강화투데이

www.ghtoday.co.kr

등록번호 인천, 다06132(일반주간 / 구독료 무료) 등록일 2021년 8월 17일 발행인 강화투데이(주) 신봉기 편집인 최벽하 인쇄인 서석준
발행소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송악길 4 T. 032)933-1080 F. 933-1082 E. today1080@naver.com

강화투데이 취재 · 광고 후원 ☎ 032.933.1080 농협 351-9933-1080-53

▶ 민의(民意)의 마음으로 오늘을 열어나가는 강화투데이(일반주간)는 구독료 무료로 애독자분들께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미디어입니다! ◀
강화군 신문발전지원조례에 따라 강화군 지방보조금으로 지원 제작되었습니다